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양육 역량의 매개효과*

이 수 현)¹⁾ 이 강 이)²⁾ 이 재 립)³⁾ 김 영 선)⁴⁾ 유 예 진)⁵⁾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전이는 아동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중요한 생애사건이다. 대다수 부모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지원과 정보를 얻는다. 이 연구는 어머니가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과 양육 역량,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사회적 지원과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를 양육 역량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머니 3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주요 변인의 측정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델링과 붓스트랩 방법으로 연구모형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어머니가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 양육 역량, 그리고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높은 양육 역량과 관계가 있었으며, 양육 역량은 학령 전 아동의 높은 사회준비도와 관계가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역량은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어머니의 역량을 증진하고 결과적으로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초등학교 전이,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 학교준비도, 양육 역량

* 본 논문은 2017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전문 발표한 논문이며,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NRF-2017S1A5B8A02072579).

1)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E-mail: kangyil@snu.ac.kr)

3)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4)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5)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I. 서론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유아가 경험하는 가장 큰 환경적 변화 중 하나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교실환경은 규모가 크고 일률적이며, 교과 학습 위주로 고정적인 일과가 진행된다(이수현, 황혜정, 2014). 이처럼 두 기관 간 환경과 일과가 판이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요구되는 태도 또한 다른데, 학령 전과 비교하여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이 시기 아동은 새로운 또래, 성인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학습과 과업 수행 측면에서도 인지적 도전에 직면한다(Gagné & Gagnier, 2004; Rimm-Kaufman, Pianta, & Cox, 2000). 이와 같이 초등학교 전이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시기 아동은 불안, 불확실성, 혼란감 등을 경험할 수 있다(Yeboah, 2002). 전이 과정에서 아동이 획득하는 지식, 기술, 태도는 이후의 학교 적응과 학업수행을 강력하게 예측한다(Entwisle & Alexander, 1998). 그러나 초등학교 전이를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하면 이것이 학년이 올라가도 학교생활과 학업 성취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쉽다(Tramontana, Hopper, & Slezer, 1988).

성공적인 초등학교 전이를 예측하는 유아의 발달적 준비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유아의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가 있다. 학교준비도는 인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초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유아의 준비도를 의미한다(Rimm-Kaufman et al., 2000). 유아의 학교준비도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의 학습, 건강, 사회적 적응을 모두 예측하며(Hair, Halle, Terry-Humen, Lavelle, & Calkins, 2006), 입학 시점의 학습 능력은 이후 학업 성취를 종단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 중 하나이다(Duncan et al., 2007). 반면 낮은 학교준비도는 지속적인 부적응을 예측하고(Rouse, Brooks-Gunn, & McLanahan, 2005) 이후 비행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높인다(Bowman, 2006). 요컨대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는 성공적인 초등학교 전이 뿐 아니라 이후의 지속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발달적 중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도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및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강현옥, 황혜원, 2013; 성미영, 장영은, 이강이, 손승희, 2010; 이수현, 황혜정, 2014). 일부 연구에서 동일한 학교준비도 척도로 측정한 개념을 학습준비도라 일컫기도 하였으나(박희숙, 2012; 최지현, 박혜원, 2010) 엄밀한 의미에서 학교준비도는 발달 영역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습준비도(learning readiness)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취학 준비를 생태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유아의 학교준비도에서 유아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가정, 학교 등 유아를 둘러싼 환경적 특성을 중시한다(Pianta & Kraft-Sayre, 2003).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유아의 성공적인 초등학교 전이 및 학교준비도와 관련하여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생태학적 환경으로 부각되고 있다(장명림, 김홍원, 지성애, 염지숙, 정정희, 2015). 발달적 측면에서 부모는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 변인일 뿐 아니라 학교 준비

와 관련된 교육적인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방소영, 황혜정, 2013),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초등학교 전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과 관련하여 학업수행에 특히 불안을 느낄 경우, 학습에 대한 불안을 사교육으로 해소하고자 하여 유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명림 등, 2015). 실제로 최근 국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령 전 자녀의 어머니 대부분이 초등학교 입학에 불안을 느끼며, 이것이 과도한 학습 지도 및 사교육으로 연결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장명림, 현주, 박균열, 이정옥, 하민경, 2014).

이와 관련하여 학령 전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이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자녀의 원활한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돕는 것에 한계를 느끼나, 필요한 정보를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충분히 얻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정우정, 2006; 허혜경, 2014). 이처럼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지원 및 정보 제공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는 초등학교 전이와 학교준비에 관한 정보와 도움을 비공식적 관계망에 의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유아의 취학 준비에서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 부모 스스로 취학 준비에 한계를 느끼나 기관을 통한 정보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머니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을 통해 얻는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자녀 취학과 관련된 양육행동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유아의 학교준비도와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등학교 학령 전 아동의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교육과 관련하여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다. 사회적 지원은 근거리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공받는 형식적·비형식적인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도구적 지원으로(Dunst & Trivette, 1990), 지각한 사회적 지원(perceived social support)과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received social support)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Heller & Swindle, 1983; Vaux, Riedel, & Stewart, 1987). 지각한 사회적 지원은 주어진 사회적 지원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만족감과 유용성을 의미하는 반면(Sarason, Sarason, & Pierce, 1990),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은 개인이 지원체계로부터 제공받은 구체적인 지원의 행동을 의미한다(Haber, Cohen, Lucas, & Baltes, 2007). 지각한 사회적 지원은 주어진 사회적 지원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측정하므로 지각적 처리, 판단, 기억 처리 등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의 영향을 받는다(Lakey & Drew, 1997). 그러나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은 전반적인 인상이 아닌 개인이 주변인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원의 행동 예시를 통해 측정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제공된 사회적 지원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Barrera, 1986).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고(김민경, 김경은, 2009),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난다(성영혜, 1993). 또한 어머니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원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사회적 유능성에 종단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Bono, Sy, & Kopp, 2016; Taylor, Conger, Robins, & Widaman, 2015). 이들 연구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부모가 받은 사회적 지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사회적 지원을 측정할 때 지각한 사회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거나(김민경, 김정은, 2009; Taylor et al., 2015), 지각한 사회적 지원과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을 구분하지 않고 각각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혼재된 척도를 사용하여(성영혜, 1993; Bono et al., 2016) 연구 결과의 함의에 한계가 있다. 둘째, 사회적 지원 측정에 사용한 문항들이 대부분 특정한 맥락 없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상이나 경험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측면에서 어떠한 사회적 지원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의 행동을 사정하되 학부모 역할, 교육 관련 선택의 상황 등 자녀 양육·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맥락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자녀 양육의 맥락에서 받은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학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취학 준비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초등학교 전이에 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라는 현실적 측면을 반영하여(정우정, 2006; 허혜경, 2014), 자녀 양육·교육과 관련하여 주어지는 정보 측면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측정한다.

일부 연구에서 부모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발달적 결과 간 직접적 연관을 보고하기는 하나(Bono et al., 2016; Taylor et al., 2015), 이론적인 관점에서 부모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은 아동의 중간체계(mesosystem)로서 부모라는 미시체계를 거쳐 아동의 발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Bono et al., 2016; Bronfenbrenner, 197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머니가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은 학령 전 자녀의 학교준비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특성이나 양육 관련 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초등학교로의 전이는 아동 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중요한 전이이다(장명림 등, 2015). 따라서 학령 전 자녀를 둔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성공적 전이를 돕고 긍정적인 양육 행동을 증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교준비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양육 관련 변인은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실제 수행 능력을 의미하는 양육 역량(parenting competency)에 주목하고자 한다. 역량(competency)이란 특정 분야에서 성공적인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우수한 수행자의 특성으로(McClelland, 1993: 정계숙, 최은실, 2013에서 재인용), 양육 역량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을 이루는 부모의 양육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모 역량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정계숙, 최은실, 2013), 자녀의 발달적 특징·욕구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해, 건강한 부모관, 인내심, 긍정적 양육 행동, 발

달과 학습을 지원하는 적절한 환경 제공 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양육 역량은 양육 지식과 신념, 행동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고(류기자, 김영주, 송연숙, 2009;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심리적 안녕감이 높으며(이도경, 2013) 양육 스트레스가 낮고(김도희, 김성이, 신효진, 2007) 양육부담도 덜 경험(배경희, 정영숙, 2008)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을 받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는 보다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김민경, 김경은, 2009). 이처럼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된 심리적 측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실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육 행동을 이끈다(최윤희, 문혁준, 2016; Crnic, Greenberg, Robinson, & Ragozin, 1984; Shin, Park, & Kim, 2006; Wallace, 2013). 따라서 양육 지식과 신념, 행동을 포괄하는 양육 역량 역시 어머니가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육 역량과 자녀의 학교준비도 간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는 제한적이나, 양육 역량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요인인 양육태도, 양육행동, 양육신념 등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 관련성을 제시하는 연구는 다수 축적되어있다. 가령 어머니의 양육행동(박연정, 정옥분, 2010; 이주아, 박지은, 정혜민, 이순형, 2017), 양육신념(성미영 등, 2010), 양육스트레스(윤정순, 이미현, 이유미, 2017)는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예측한다.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이 다문화가정 유아의 학

교준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강현옥, 황혜원, 2013; 도미진, 김주후, 2011; 정혜영, 정옥분, 2011).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양육 역량을 총체적으로 측정하고 이것이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통합·확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어머니가 자녀 양육·교육과 관련하여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은 먼저 어머니의 양육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아동의 학교준비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은 그 자체로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머니의 양육 역량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이 세 변인의 관계를 함께 분석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기제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변인을 함께 모형에 투입하여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양육 관련 요인과 어머니가 경험한 사회적 지원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분석하였다. 일부 연구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이 양육 관련 변인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나 심리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구조를 지지하고 있으나(김민경, 김경은, 2009; Taylor et al., 2015) 이들 연구는 모두 실제 받은 지원이 아닌 지각한 지원을 측정하였을 뿐 아니라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어서 아동의 학교준비에 관련한 함의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원의

측정에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자녀 양육과 교육의 맥락에서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고 이것이 어머니의 양육 역할을 통하여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구조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가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 양육역량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역량은 어머니가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참여자는 첫째 자녀가 만 6세 또는 7세로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어머니 368명이다. 조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17년 2월에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는 경기(53.3%), 서울(35.3%), 인천(11.4%) 순으로 분포하였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만 38.1세였으며 직업은 전

표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N = 368)

항목			항목		
		n (%)			n (%)
자녀 수	1명	136 (37.0)	월 평균 가구 소득	199만원 이하	8 (2.2)
	2명	194 (52.7)		200-299만원	35 (9.5)
	3명 이상	38 (10.3)		300-399만원	100 (27.2)
거주지	서울	130 (35.3)		400-499만원	109 (29.6)
	경기	196 (53.3)		500-599만원	59 (16.0)
	인천	42 (11.4)		600만원 이상	57 (15.5)
연령	35세 미만	49 (13.3)	학력	고졸 이하	67 (18.2)
	35세-43세	274 (74.5)		2~3년제 전문대졸	91 (24.7)
	43세 이상	45 (12.2)		4년제 대졸	198 (53.8)
	평균	38.1		대학원 졸	12 (3.3)
직업	판매직	11 (3.0)	첫 자녀 교육기관	어린이집	161 (43.8)
	사무직	87 (23.6)			
	서비스직	41 (11.1)			
	고위관리직/전문직	7 (1.9)		유치원	207 (56.2)
	전업주부	218 (59.2)			
	자영업	4 (1.2)			

업주부가 59.2%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소득은 300-399만원(27.2%) 및 400-499만원(29.6%)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참여자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3.8%로 다수였다. 조사 당시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은 유치원이 207명(56.3%), 어린이집이 161명(43.8%)으로 두 기관이 유사한 가운데 유치원이 다소 많았다.

2. 측정도구

유아의 학교준비도

학교준비도는 Murphey와 Burns(2002)가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역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척도로 측정하였다(육아정책연구소, 2016). 학교준비도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교실 안의 상황을 묻는 문항은 학부모가 응답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외하고 총 21문항을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사회정서발달(6문항), 학습에 대한 태도(7문항), 의사소통(3문항),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5문항)을 측정하는 21문항이 사용되었으며, 원도구는 4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한 충분한 분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5점 척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하위 영역에 따라 사회정서발달은 .71, 학습에 대한 태도는 .74, 의사소통은 .71,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은 .7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이었다.

어머니가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

어머니가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을 측정

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정보적 지지'와 관련된 문항을 자녀 양육·교육의 맥락과 연관지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가 사회관계망 속 지인들로부터 받은 적 있는 사회적 지원 행동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어,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을 개념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앞둔 어머니가 취학 준비와 관련하여 주로 얻는 사회적 지원이 취학 관련 정보와 조언이라는 점에서 문항의 내용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문항 예시는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자녀 양육(교육)과 관련하여 선택을 해야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준다.”,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내가 교육 현실을 이해하고 학부모로서의 역할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충고를 해 준다.”,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자녀 양육(교육)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등이다. 총 6개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참여자의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을 실제로 많이 받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2였다.

어머니의 양육 역량

어머니의 양육 역량 측정에는 정계숙과 최은실(2013)의 부모역량감 척도를 정계숙, 박희경과 차지량(2016)이 단축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역량감 척도 중 양육 역량 하위척도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양육 역량을 측정하였

표 2. 양육역량 척도의 하위척도 구성

하위척도명 (문항 수)	신뢰도 (Cronbach's α)
1. 자녀발달 특징과 욕구 이해 (3)	.63
2. 부모-자녀관계 이해 (3)	.60
3. 건강한 부모관 갖기 (3)	.59
4. 자녀 삶과 양육의 방향, 목표 설정 (3)	.55
5. 인내심 갖기 (3)	.48
6. 민주적 양육 (3)	.67
7. 반응적·공감적 양육 (3)	.58
8. 자녀 생애 진로 개발 (3)	.70
9. 발달·학습 지원 환경 제공 (3)	.70
전체 문항 (27)	.91

다. 이 척도는 총 9개 하위영역, 27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을 5점 척도로 수집한다. 하위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발달특징·욕구 이해, 부모-자녀 관계이해, 건강한 부모관 갖기, 자녀 삶과 양육방향 목표 설정, 인내심 갖기, 민주적 양육, 반응적·공감적 양육, 자녀 생애 진로 개발, 발달·학습 지원 환경 제공이며 각 영역마다 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영역별 Cronbach's α 와 함께 표로 나타낸 것은 표 2와 같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먼저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 변인의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자료의 정규성을 가정하므로 자료의 첨도와 왜도를 확인하여 정규성 가정에 부합하는

지 확인하였다. 이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모형 검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 연구의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이 때 이 연구에 사용된 양육 역량 척도의 하위영역이 9개로 이를 그대로 측정변수로 사용하기에는 수가 다소 많았으며, 하위척도 중 일부가 척도의 내적 일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이를 개별 측정변수로 사용해야 할 근거가 희박하였다. 측정변수의 수가 많으면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정규성이 위반되면 모형적합도에 악영향을 미친다(Bandalos, 2002). 또한 추정할 모수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수 추정도 왜곡될 수 있다(장진이, 이지연, 2014; 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이러한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문항꾸러미(item parcel) 제작을 권장한다(Bandalos, 2002; Russell et al., 1998). 이에 이 연구에서는 양육 역량의 측정에서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문항꾸러미 제작에는 문항꾸러미 간 요인부하량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인 문항-구성개념 간 균형(item-to-construct balance)방법을 사용하였다(임정란, 강영신, 문정순, 이재우, 2014; 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결과적으로 각각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세 개의 양육 역량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으며, 각 꾸러미의 문항 평균을 통해 양육 역량 측정변수를 구인하였다. 사회적 지원은 6개 문항을 측정변수로 하는 잠재변수로 처리하였으며, 학교준비도는 4개 하위영역의 문항 평균을 측정변수로 하는 잠재변수로 처리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검증

하였으며, 이후 구조방정식 모델링으로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χ^2 , CFI, TLI, RMSEA를 고려하였다.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인으로 선정한 양육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때 원자료로부터 무선표집으로 생성한 10,000개의 자료 표본을 바탕으로 간접효과의 모수를 추정하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분석에는 SPSS 22.0과 Amo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Duncan et al., 2007; Janus & Duku, 2007), 구조모형에서 학교준비도에 대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구 월소득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가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 어머니의 양육역량,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

사회적 지원, 양육 역량, 학교 준비도의 전반적 경향

연구 모형 검증 전 자료의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하고 정규성 가정에 부합하는지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3과 같다. 연구 변인의 평균은 사회적 지원은 3.84, 양육 역량은 3.90, 학교준비도는 4.16으로 나타났다.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별 평균은 4.09~4.27 사이에 분포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변수의 다변량 정규분포를 가정하므로(Bollen & Stine, 1992),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원의 문항별 왜도는 -0.98~-0.40, 첨도는 0.33~2.03이었다. 양육 역량의 문항별 왜도는 -0.27~0.07, 첨도는 0.10~0.32였다. 학교준비도의 하위영역별 왜도는 -0.45~-0.23, 첨도는 0.44~0.63이었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2 이하, 첨도의 절대

표 3.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치

항목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사회적 지원	3.84	0.46	-0.61	1.33
양육 역량	3.90	0.36	-0.11	0.02
학교준비도	4.16	0.39	-0.41	1.18
사회정서발달	4.11	0.44	-0.32	0.62
학습에 대한 태도	4.09	0.43	-0.23	0.44
의사소통	4.19	0.53	-0.39	0.52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4.27	0.46	-0.45	0.63

주. 모든 변수에 대하여 문항별 평균을 사용함.

*** $p < .001$.

값이 7 이하일 때 정규성 가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Curran, West, & Finch, 1996). 모든 측정변수의 왜도와 첨도가 이 기준에 부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지원, 양육역량, 학교준비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 변인의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표 4 참조). 그 결과 사회적 지원과 양육 역량의 모든 측정변수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r = .12 \sim .29, p < .05 \sim .001$), 양육 역량과 학교준비도도 모든 측정변수의 쌍에서 유의한 상관이 보고되었다($r = .29 \sim .46, p < .001$). 사회적 지

원과 학교준비도의 경우에는 일부 측정변수 간 상관만이 유의하였다($r = .05 \sim .20, p < .001 \sim n.s.$). 학교준비도의 하위요인 중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은 사회적 지원의 모든 측정문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나머지 요인은 문항에 따라 비일관적으로 상관이 나타났다.

2. 어머니가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역량의 매개효과

연구 변인의 측정모형 분석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각 측정변수가 잠재

표 4.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											
2	.40***	—										
3	.41***	.37***	—									
4	.33***	.31***	.40***	—								
5	.37***	.51***	.39***	.43***	—							
6	.42***	.49***	.49***	.47***	.70***	—						
7	.23***	.19***	.23***	.29***	.18**	.23***	—					
8	.21***	.14**	.21***	.27***	.18**	.23***	.79***	—				
9	.25***	.12*	.21***	.25***	.15**	.19***	.82***	.77***	—			
10	.17**	.14**	.08	.17**	.14**	.15**	.34***	.38***	.36***	—		
11	.19***	.08	.06	.12*	.09	.14**	.44***	.44***	.46***	.62***	—	
12	.12*	.12**	.05	.19***	.04	.10	.29***	.30***	.32***	.55***	.65***	—
13	.18**	.17**	.12*	.20***	.11*	.15**	.35***	.32***	.35***	.48***	.66***	.65***

주. 1-6: 사회적 지원 문항 1-6, 7-9: 양육역량 1-3, 10: 학교준비도-사회정서발달, 11: 학교준비도-학습에 대한 태도, 12: 학교준비도-의사소통, 13: 학교준비도-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척도	하위요인	<i>B</i>	<i>SE</i>	β	C.R.
사회적 지원	문항 1	1.00		.55	
	문항 2	1.18	.14	.62	8.76***
	문항 3	1.26	.15	.59	8.49***
	문항 4	1.05	.13	.58	8.37***
	문항 5	1.41	.14	.77	9.91***
	문항 6	1.48	.14	.83	10.23***
양육 역량	양육 역량 1	1.00		.91	
	양육 역량 2	1.01	.04	.86	23.32***
	양육 역량 3	0.99	.04	.90	25.11***
학교준비도	사회정서발달	1.00		.69	
	학습에 대한 태도	1.22	.08	.87	14.39***
	의사소통	1.35	.10	.77	13.21***
	인지발달 및 일반적 지식	1.18	.09	.77	13.22***

*** $p < .001$.

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FI = .97, TLI = .96, RMSEA = .05로 나타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좋은 적합도 기준(CFI, TLI > .9, RMSEA ≤ .05)에 부합하였다(Browne & Cudeck, 1992).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수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은 사회적 지원이 .55~.84,

양육 역량이 .86~.91, 학교준비도가 .70~.87로 나타났으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나타냈다. 이는 모든 측정변수들이 사회적 지원, 양육 역량, 학교준비도라는 잠재변수를 잘 구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5와 같다.

또한, 이 연구의 연구문제인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전 측정모형을 통해 구인된 잠재변

표 6. 잠재 변인 간 상관관계

	1. 사회적 지원	2. 양육 역량	3. 학교준비도
1. 사회적 지원	—		
2. 양육 역량	.53***	—	
3. 학교준비도	.21**	.32***	—

** $p < .01$. *** $p < .001$.

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모든 잠재변인 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표 6 참조). 사회적 지원은 양육 역량($r = .53, p < .001$), 학교준비도($r = .21, p < .01$)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양육 역량과 학교준비도($r = .32, p < .001$)간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역량과 자녀의 학교준비도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양육역량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준비도도 높았다.

사회적 지원과 학교준비도 간 관계에서 양육역량의 매개효과

측정 모형이 검증되었으므로, 이 연구의 연구문제인 사회적 지원과 학교준비도의 관계를 양육 역량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구

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FI = .96$, $TLI = .95$, $RMSEA = .05$, $\chi^2 = 173.45(df = 84, p < .001)$, $RMSEA = .05$ 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연구 모형의 경로 중 사회적 지원 $\rightarrow$ 학교준비도에 이르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5, p > .05$). 이에 이를 삭제하고 분석을 실시한 결과, 더 간명한 모형의 χ^2 통계량이 174.13($df = 85, p < .001$)으로 연구 모형의 적합도와 유의한 수준에서 다르지 않았다. 이에 사회적 지원 $\rightarrow$ 학교준비도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는 $CFI = .96$, $TLI = .95$, $RMSEA = .05$ 등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표 7 참조).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와 그 유의도는 표 8과 같다. 어머니가 받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은 높은 양육 역량과 유의한

표 7. 최종모형의 모형적합도

모형적합도				
NFI	TLI	CFI	RMSEA	$\chi^2(df)$
.93	.95	.96	.05	174.13(85)***

*** $p < .001$.

표 8.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사회적 지원 $\rightarrow$ 양육 역량	.33	.33	.06	5.17***
양육 역량 $\rightarrow$ 학교준비도	.46	.52	.05	8.68***
95% CI				
사회적 지원 $\rightarrow$ 양육 역량 $\rightarrow$ 학교준비도	.15	.17	$B: .08 \sim .25$ $\beta: .09 \sim .2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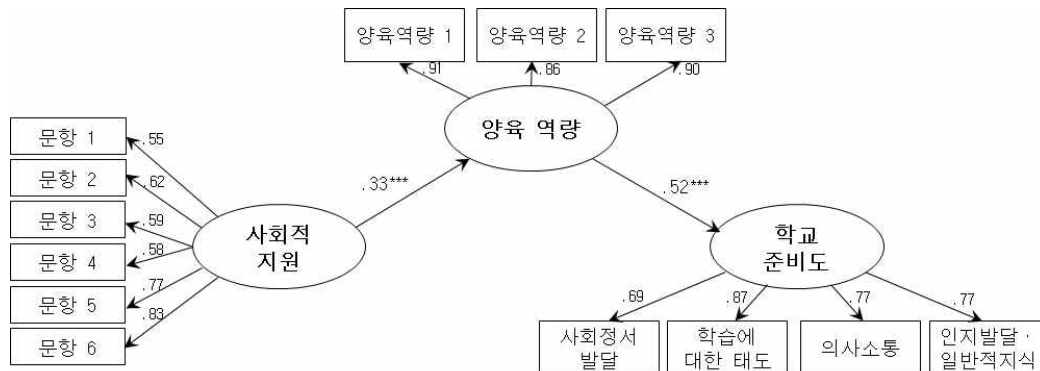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지원, 양육 역량, 학교준비도의 매개모형

주. 학교준비도에 대한 통제변수(어머니 교육수준, 가구 월 소득)의 결과는 생략하였음. 요인부하량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음.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 $p < .001$.

관계가 있었으며($\beta = .33, p < .001$), 높은 양육 역량과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의 정적 관계도 유의하였다($\beta = .52, p < .001$). 즉, 어머니가 경험한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높으면 양육 역량이 높고, 그 결과 자녀의 학교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 결과 사회적 지원이 양육 역량을 통하여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검증되었다($\beta = .17, 95\% \text{ CI} = .09 \sim .26$). 최종 모형과 표준화 경로계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그림 1과 같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앞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을 조사하고, 이것과 어머니의 양육 역량,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때 어

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 역량의 매개 역할을 검증함으로써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 관계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기제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령 전 자녀를 둔 어머니와 그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실제로 받는 사회적 지원, 양육 역량,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우선,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은 양육 역량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는 어머니가 경험과 정보를 지닌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고, 조언, 정보와 지지를 얻는 경우 실제로 더 바람직한 양육 태도와 행동을 보이며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양육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최윤희, 문혁준, 2016; Crnic et al., 1984; Shin et al., 2006;

Wallace, 201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국내의 어머니가 이웃 사람들로 부터 전해 듣는 양육 관련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정영택, 조선자, 이강호, 2002). 그러나 사회적 지원이 양육 역량으로 이어진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취학을 앞둔 유아의 어머니가 주변의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얻는 정보적 지지가 비교적 정확하고 유용한 도움임을 보여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역량은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와도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 행동, 양육신념, 양육 스트레스 등 양육 관련 변인이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를 예측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강현옥, 황혜원, 2013; 도미진, 김주후, 2011; 박연정, 정옥분, 2010; 성미영 등, 2010; 윤정순 등, 2017; 이주아 등, 2017; 정혜영, 정옥분, 2011). 학교준비도가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인지발달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 합리적인 지도와 반응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정서 표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유경량, 2004; 윤은미, 2004)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이 유아의 적응성과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결정성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서주현, 이순형, 2009)와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육 역량의 개념적 정의가 아동의 긍정적인 사회심리적 발달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역량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된 것은 양육 역량의 개념적 정의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구 월 소

득의 영향을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대한 양육 역량의 회귀계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와 취학 준비에서 어머니 양육 역량의 역할을 재강조해 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역량은 어머니가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과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간 관계를 매개하였다. 즉, 어머니가 자녀 양육과 교육의 맥락에서 주변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 역량을 높였으며, 이것이 학령 전 자녀의 높은 학교준비도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학교입학을 앞두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바람직한 양육과 교육을 위한 정보를 많이 얻는 어머니가 실제로 자녀 발달에 바람직한 양육을 수행하며 결과적으로 학령 전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위해 더 발달적으로 잘 준비된 상태가 되게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가 받는 사회적 지원이 양육 태도(김민정, 김경은, 2009) 및 양육 행동(Taylor et al., 2015)을 매개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과 동일한 맥락이다. 또한 이는 어머니가 제공받은 사회적 지원이 우울 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통하여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Bono et al., 2016)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정영택 등(2002)은 주변인으로부터 얻은 잘못된 육아 정보가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학령 전 아동의 어머니가 양육과 교육에 관하여 획득한 사회적 지원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역량이 증진되고 유아의 학교준비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제로 주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의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어서 일수도 있지만, 주어지는 정보 중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분간, 구별하여 적용하는 어머니의 역량이 작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 젊은 세대의 어머니들이 양육·교육 관련 정보를 주변인 뿐 아니라 책,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 획득한다는 연구결과(이주연, 이석호, 2010) 후자의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어머니가 실제 받은 사회적 지원은 자녀의 학교 준비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원과 아동의 발달적 결과 간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고하는 선행연구(Bono et al., 2016; Taylor et al., 2015)와는 불일치하나, 직접적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한 연구(김민경, 김정은, 2009)와는 일치한다. 이 연구는 자녀 양육과 교육의 맥락에서 받은 사회적 지원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과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대하여 제공하는 연구 결과의 함의가 더 엄밀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회적 지원의 효과 검증 시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월 소득을 통제하였으므로, 주요 변인 간 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검증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지원은 아동의 중간체계로서 미시체계인 부모를 거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과 학교준비도 간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양육 역량을 통한 간접 경로만 유의했던 것은 이러한 이론적 논리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검증한 매개 구조는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이 실제 학령 전 아동의 발달적 결과로서 학교준비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양육 역량이 주요한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즉, 어머니가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얻으며, 교육 현실과 학부모 역할에 적용하기 위한 충고를 듣는 것은 어머니로 하여금 더 유능한 양육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령 전 자녀의 높은 학교준비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장명립 등(2015)은 초등학교 전이 과정에서 유아 이상으로 많은 불안과 걱정을 하는 사람이 학부모임을 밝히면서, 유아의 초등학교 전이를 돕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학부모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제언과 이 연구의 결과를 관련지어 보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머니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원은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하여 어머니의 양육 역량을 증진하며, 이를 통해 유아의 긍정적인 초등학교 전이를 돕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는 사회적 지원의 세부적인 측면으로서 지원 제공자에 대한 정보는 다루지 못하였다. 사회적 지원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 역량과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지원 제공자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을 탐색한다면, 어머니의 자녀 양육과 아동 발달에 특히 중요한 사회적 지원의 원천을 확인하는 등 이 연구의

결과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모든 연구 변수를 어머니의 응답을 통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동일방법분산(shared method variance)이 발생하여 회귀계수가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학교준비도를 어머니의 응답이 아닌 다른 응답자(예: 유아 보육·교육기관의 교사)를 통해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과 양육 역량, 학교준비도 간의 구조적 기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각 변인의 세부적인 하위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양육 역량의 어떠한 측면이 특히 사회적 지원의 중대한 영향을 받으며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양육 역량 중에서도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은 주로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발달적인 특징과 욕구,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해는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에 의해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의 하위 요인인 도구적, 정보적, 정서적지지 중 어머니의 양육 역량이나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큰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유아의 학교준비도 역시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 및 어머니의 양육 역량에 의해 받는 영향이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주요 변인을 하위 영역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탐색한다면, 어머니가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원, 양육 역량 및 유아의 학교준비도와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이 실제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제로서 양육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간 직접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지원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 역량을 높이는 것이 부모의 학부모 역할 및 부모 역할 수행 전반과 관련이 되며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적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사회적 지원을 응답자의 주관적인 만족도나 유용성으로 측정하지 않고 자녀 양육의 맥락 속 구체적인 지원 행동의 예시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개인이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회적 지원의 수준이 아닌, 실제로 받은 지원의 수준을 측정하여 응답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인한 편향을 피하고 자녀 양육 및 아동 발달의 관점에서 사회적 지원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어머니가 받은 사회적 지원이 실제 수행 능력으로서 어머니의 양육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로 이어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입학 앞둔 아동의 학교적응 준비와 이를 돕는 어머니에게 정보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됨을 보여준다. 이때 어머니의 양육 역량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지원이 자녀의 발달적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어머니의 양육 역량 증진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지역사회단위의 사회관계망이 촉진된다면, 학령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역량 증진과 학령 전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옥, 황혜원 (2013). 다문화가정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2(1), 101-119.
- 김도희, 김성이, 신효진 (2007). 농촌지역 결혼 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9(3), 53-78.
- 김민경, 김정은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119-135.
- 김창복, 이신영 (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319-350.
- 도미진, 김주후 (2011). 다문화 가정 유아의 학교 준비도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사이의 관계.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5(3), 31-48.
- 류기자, 김영주, 송연숙 (2009).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5(1), 1-23.
- 박연정, 정옥분 (2010).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관련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17(3), 37-54.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희숙 (2012). 조손가정 유아의 학습준비도 관련 변인 탐색. *유아교육연구*, 32(2), 333-351.
- 방소영, 황혜정 (2013). 초등학교 학교준비도에 대한 유아기자녀 부모, 학령기자녀 부모와 유아교사, 초등교사의 인식차이. *아동학회지*, 34(2), 139-160.
- 배경희, 정영숙 (2008). 발달장애아동 가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부담 및 대처행동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7(4), 115-137.
- 서주현, 이순형 (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 조화적합성이 유동성 지능 및 결정성 지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9(4), 47-71.
- 성미영, 장영은, 이강이, 손승희 (2010). 양육신념, 부모협력 및 가정학습환경과 유아의 학교준비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1-29.
- 성영혜 (1993).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유경량 (2004).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표현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육아정책연구소. (2016). 한국아동패널 제 7차 조사 도구프로파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윤은미 (2004). 어머니의 부모 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정순, 이미현, 이유미 (2017). 자녀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학교적응 기대가 자녀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6(1), 131-155.
- 이도경 (2013). 사회적 지지가 발달장애 유아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2(2), 161-188.
- 이수현, 황혜정 (2014). 유아의 학교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2), 385-410.
- 이주아, 박지은, 정혜민, 이순형 (2017). 부모의 정서적 자녀가치, 양육행동, 유아의 학습준비도 및 학업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자기-상대방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7(4), 453-477.
- 이주연, 이석호 (2010).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정보 습득과 양육지식. *아동학회지*, 31(4), 179-197.
- 임정란, 강영신, 문정순, 이재우 (2014). 상담교사의 대리외상과 대리외상 후 성장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자기조절능력의 이중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89-107.
- 장명림, 김홍원, 지성애, 염지숙, 정정희 (2015).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지원 방안.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장명림, 현주, 박균열, 이정옥, 하민경 (2014).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연계 강화 방안 연구.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장진이, 이지연 (2014). 교사의 소명의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123-146.
- 정계숙, 박희경, 차지량 (201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단축형의 타당화. *유아교육연구*, 36(2), 535-560.
- 정계숙, 최은실 (201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모 참 역량 척도 개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8(3), 225-257.
- 정우정 (2006).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학교 적응에 대한 학부모 인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택, 조선자, 이강호 (2002). 주위에서 잘못 전해지고 있는 육아 상식에 관한 연구. *소아과*, 45(1), 24-36.
- 정혜영, 정옥분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2), 277-297.
- 최윤희, 문혁준 (2016).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배우자 지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0(6), 407-424.
- 최지현, 박혜원 (2010). 가정환경 변인 및 아동 개인특성이 취학전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1), 113-124.
- 허혜경 (2014). 유아-초등교육 전이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과 참여 실태. *유아교육연구*, 34(2), 435-453.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4), 413-445.
- Bentler, P. M., & Chou, C. P. (1987). Practical issues in structural modeling.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6(1), 78-117.
- Bollen, K. A., & Stine, R. A. (1992). Bootstrapping goodness-of-fit measur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05-229.
- Bono, K. E., Sy, S. R., & Kopp, C. B. (2016). School readiness among low-income black children: Family characteristics, parenting, and social suppor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6(3), 419-435.
- Bowman, B. T. (2006). Standards: At the heart of educational equity. *Young Children*, 61(5), 42-48.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 Cohen, S., Underwood, L. G., & Gottlieb, B. H. (2000).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Oxford University Press.
- Crnic, K. A., Greenberg, M. T., Robinson, N. M., & Ragozin, A. S. (1984). Maternal stress and social support: Effects on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from birth to eighteen month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2), 224-235.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uncan, G. J., Dowsett, C. J., Claessens, A., Magnuson, K., Huston, A. C., Klebanov, P., Pagani, L. S., Feinstein, L., Engel, M., Brooks-Gunn, J., Sexton, H., Duckworth, K., & Japel, C. (2007). School readiness and later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3(6), 1428-1446.
- Dunst, C. J., & Trivette, C. M. (1990). Assessment of social support in early intervention programs. In S. 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 326-34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ntwisle, D. R., & Alexander, K. L. (1998). Facilitating the transition to first grade: The nature of transition and research on factors affecting i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98(4), 351-364.
- Gagné, F., & Gagnier, N. (2004). The socio-affective and academic impact of early entrance to school. *Roeper Review*, 26(3), 128-138.
- Haber, M. G., Cohen, J. L., Lucas, T., & Baltes, B. B.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received and perceived social

- support: A meta-analy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9(1-2), 133-144.
- Hair, E., Halle, T., Terry-Humen, E., Lavelle, B., & Calkins, J. (2006). Children's school readiness in the ECLS-K: Predictions to academic, health, and social outcomes in first grad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4), 431-454.
- Heller, K., & Swindle, R. W. (1983). Social network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stress. In R. D. Felner (Ed.), *Preventive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87-103). New York: Pergamon.
- Janus, M., & Duku, E. (2007). The school entry gap: Socioeconomic, family, and health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ren's school readiness to learn.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8(3), 375-403.
- Kagan, S. L. (1994). Readyng schools for young children. *Phi Delta Kappan*, 76(3), 226-233.
- Lakey, B., & Drew, J. B. (1997).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on social support. In G. R. Pierce, B. Lakey, I. G. Sarason, & B. R. Sarason (Eds.), *Sourcebook of social support and personality* (pp. 107-140). New York: Plenum.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cClelland, D. C. (1993). Introduction. In L. M. Spencer & S. M. Spencer (Eds.),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pp. 3-8). New York: Wiley.
- Murphey, D. A., & Burns, C. E. (2002).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assessment of school readiness. *Early Childhood Research & Practice*, 4(2), 1-8.
- Pianta, R. C., & Kraft-Sayre, M. (2003). *Successful kindergarten transition: Your guide to connecting children, families, & schools*. Maryland: P. H. Brookes.
- Rimm-Kaufman, S. E., Pianta, R. C., & Cox, M. J. (2000). Teachers' judgments of problems in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2), 147-166.
- Rouse, C., Brooks-Gunn, J., & McLanahan, S. (2005). Introducing the issue. *The Future of Children*, 15(1), 5-14.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Sarason, B. R., Sarason, I. G., & Pierce, G. R. (1990). Traditional views of social support and their impact on assessment. In B. R. Sarason, I. G. Sarason, & G. R. Pierce (Eds.), *Social support: An interactional view* (pp. 9-25). New York: John Wiley & Sons.
- Shin, H., Park, Y. J., & Kim, M. J. (2006). Predictors of maternal sensitivity during the early postpartum period.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5(4), 425-43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Taylor, Z. E., Conger, R. D., Robins, R. W., & Widaman, K. F. (2015). Parenting practice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Longitudinal relations with the social competence of Mexican-origin children. *Journal of Latina/o Psychology, 3*(4), 193-208.
- Tramontana, M. G., Hooper, S. R., & Selzer, S. C. (1988). Research on the preschool prediction of later academic achievement: A review. *Developmental Review, 8*(2), 89-146.
- Vaux, A., Riedel, S., & Stewart, D. (1987). Modes of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behaviors(SS-B) scal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5*(2), 209-232.
- Wallace, G. (2013). African-American mother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arenting quality: Does personal outlook make a difference?. *Sociological Perspectives, 56*(2), 261-285.
- Yeboah, D. A. (2002). Enhancing transition from early childhood phase to primary education: Evidence from the research literature. *Early Years: 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22*(1), 51-68.

1 차원고접수 : 2018.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8. 08. 21.
최종게재결정 : 2018. 08. 28.

The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Received Social Support and Children's School Readi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Competency

Lee, Suhyun¹⁾ Lee, Kangyi¹⁾²⁾ Lee, Jaerim¹⁾²⁾ Kim, Youngsun²⁾ Yoo, Yejin¹⁾

¹⁾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²⁾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is an important but often challenging life event not only for children but also for their parents in Korea. Many Korean parents seek information and support from their personal networks while helping their children prepare for elementary school. In this study, we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ocial support mothers actually receive,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and children's school readiness with a special attention given to the mediating role of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between social support and school readiness. We collected data in February 2017 from 368 mothers who were preparing to send their first child to elementary school in March 2017. After verifying the measurement model, we conducted structured equation modeling to test our conceptual model. We found that mothers'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were related to higher parenting competency, which in turn, was associated with their children's higher levels of readiness for elementary school. Bootstrapping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ing competency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mothers' received social support and their children's school readiness. Our results suggest that efforts to strengthen the social relationships of mothers whose children are entering elementary school facilitate the mothers' parenting competency, resulting in better school readiness for their children.

Keywords: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received social support, school readiness, parenting competency